1. 문항 및 자료

※ [문제 1]: [가]를 참고하여 [나]와 [다]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50점]

[가]

전통 사회는 제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다. 개인보다는 사회 혹은 집단이 강조되었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더 중시되었다. 이후 산업화를 겪으면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어 인간관계의 양상이 변하였다. 집단보다는 개인의 정체성을, 집단의 목표보다는 개인의 목표를 중요시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이 퍼진 것이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나]

구멍가게라는 곳이 있었다. 예전에 동네 어귀마다 구멍가게가 들어서 있던 모습은 기성세대에게 매우 친숙한 풍경이다. 구멍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사귐이 이루어지고 이런저런 소식이나 소문들이 모여들고 퍼져 나가는 중심지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구멍가게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슈퍼마켓이 그 자리에 들어서 규모와 가격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그 슈퍼마켓마저 얼마 전부터는 대형 할인점에 밀려나고 있다. 슈퍼마켓은 더는 '슈퍼'하지 않다. 하기야 아예 '미니 슈퍼'라는 기묘한 합성어가 일찌감치 등장하지 않았던가.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이 대형 할인점에 위협당하는 가운데 동네마다 속속 들어선 소형 매장이 있으니 바로 24시간 편의점이다. (중략)

그 경쟁력은 우선 '24시간'이라는 영업시간 때문이다.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밤 8시에서 자정까지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편의점의 성장은 도시인들의 생활 양식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도시인들은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질 뿐 아니라, 집에 와서도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일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본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더 줄어든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편의점의 신장과 관련된다.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우유와 삼각 김밥이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심야에 출출할 때 간단하게 먹을 음식이나 일상에서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을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조달할 수 있다. (중략)

편의점은 도시 문화의 산물이다. 도시인, 특히 젊은이들의 인간관계 감각과 잘 맞아떨어진다. 구멍가게의 경우 주인이 늘 지키고 앉아 있다가 들어오는 손님들을 맞이한다. 따라서 무엇을 살 것인지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편의점의 경우 점원은 출입할 때 간단한 인사만 건넬 뿐 손님이 말을 걸기 전에는 입을 열지도 않을뿐더러 시선도 건네지 않는다. 그 '무관심'의 배려가 손님의 기분을 홀가분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특별히 살 물건이 없어도 부담 없이 들어가 둘러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편의점은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리는 도시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상업 공간이다. 대형 할인점이 백화점보다 매력적인 것 가운데 하나도 점원이 '귀찮게' 굴지 않는다는 점이 아닐까. 그러므로 익명의 고객들이 대거 드나드는 편의점에 단골이 생기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편의점은 24시간 열어 놓고 있어야 하기에 주인들은 자기가 계산대를 지키기보다는 아르바이트 점원을 세우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점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어느 편의점이든 똑같고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략) 종업원이 누구든 그 외모, 말씨, 감정 등을 예측할 수 있기에 고객들은 편안하게 음식을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다. 깔끔한 인간관계 그 자체다. (중략)

편리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 '컨비니언스(convenience)'는 '함께 있음'이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왔다. 편의점은 이제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그 깔끔하고 환한 공간을 자기의 방만큼이나 친밀하게 느낀다. 고독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의점은 '도시의 성좌(星座)'처럼 위안을 준다.

- 고등학교『독서』

[다]

마을은 두 가지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물리적으로는 개인의 공간과 공공의 공간 사이에 중간적 성격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을 '사이 공간'이라 하는데, 이는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라기보다 주민들 사이에 사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중략)

과거에는 개인이 생활을 하는 집과 일을 하는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일 두 공간 사이를 오가며 그곳에서 다양한 일을 경험했다. 개인의 집과 집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서 이웃과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자신의 생활 반경인 집 주변과 그 사이사이에서 사람들과 마주치도록 구성된 공간을 '마을'이라 불렀던 것이다.

방에서 나오면 마당이 있고, 대문을 열면 골목길을 만나며, 길을 돌고 돌다 보면 그 동네의 중심부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을 안을 이동하다 보면 여러 경로를 자연스럽게 거칠 수밖에 없었다.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만남과 모임이 곳곳에서 발생하였고, 그들 사이에서는 요즘 흔히 말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집의 형태는 따로따로였지만 집 안팎을 살펴보면 모여 살 수 있는 구조였다. (중략)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는 '사이 공간'이 없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공동의 현관을 통과한 후 승강기 홀이나 복도를 거쳐 각자의 개인 공간으로 들어간다. 그곳은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는 공간이다. 주택의 형태나 외관만 보면 모두 같은 공간에 사는 유사한 집단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의 생활 모습은 공유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

사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라는 인위적 마을에서 상징적인 결속성만을 확보하고 있을 뿐 단지 내외의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다. 단지 내에는 단지를 구획하는 울타리, 보안과 감시를 위해 설치한 시시 티브이(CCTV), 외부인을 통제하는 차단기,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열 수 있는 견고한 출입문이 있을 뿐이다.

주거지의 울타리는 우리의 범주를 규정하는 '영역 만들기'의 역할을 한다. 단지 내부에 동질성을 지닌 사회 계층이 거주하는 것이 현대 주거지의 특징인데, 외부와 차별성을 갖는 고급 단지일수록 그 울타리가 견고하다. 그러나 외부와의 단절뿐만 아니라 단지 내부에서도 이웃과 만나기 위한 공간과 행위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좁은 공간에 수많은 세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겉으로는 삭막해 보이지만 일단 현관문만 열면 아늑한 주거 환경이 펼쳐진다. 반대로 현관문 하나만 잠그면 집 전체가 바깥세상과 완전히 격리된다. 가족만의 성역에는 누구라도 예고 없이 방문할 수 없고, 이웃이나 친척이라도 안에서 문을 열어 주었을 때에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중략)

사생활 보호에는 이렇듯 철저하지만, 같은 단지 내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때에는 집단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특히 그것이 단지의 이익과 관련한 것이라면 입주자회나 부녀회 같은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주저하지 않고 의사를 표현한다. 이러한 아파트 단지의 결속성과 질서는 이해관계의 일치에서 비롯된다. 개별 단위 세대들은 자신들이 집에 들인 비용을 지키기 위해 집단의 힘을 발휘한다.

- 고등학교『국어』

2. 문항 해설

2026학년도 논술고사 통합 1번 문항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집단성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목표를 중시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서술하는 [가]와, 이를 참고하여 [나], [다]에 서술된 인간관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능력을 핵심 평가요소로 삼았다.

[나]의 구멍가게는 마을 사람들이 만나서 소통하는 전통사회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지만 편의점은 일상에서의 편의를 추구하고 개인의 거리 두기를 가능하게 하는 상업적 장소이다. 구멍가게에서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되는 반면 편의점은 소통 방식의 표준화와 무관심한 배려로 인간관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인 것이다.

한편, [다]의 전통적 마을에서는 개인의 공간과 공공의 공간을 매개하는 '사이 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공간과 일터를 오가며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반면 아파트 단지에는 이러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의 영역이 부재하다. 아파트는 언뜻 여러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사는 새로운 형태의 마을공동체처럼 보이지만 단지 내외의 영역을 철저하게 구분 짓고 통제하는 개인주의에 기반한 집단의 성격을 가진다. 가끔 아파트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때 집단성을 발현하는 듯 보이지만 이는 개인의 이해관계와 단지의 이익에 기반한 확장된 개인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와 [다]를 분석할 때 편의점의 깔끔한 서비스와 아파트의 아늑한 주거 환경, 공동의 목표 등의 긍정적 측면을 중심적으로 부각하거나 반대로 구멍가게나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또는 [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구멍가게와 마을은 공동체주의, 편의점과 아파트는 개인주의로 단순하게 비교 평가하거나 아파트 단지로 대변되는 상징적 결속성과 질서를 새로운 사회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도 출제 의도에서 벗어난다. 오늘날 편의점과 아파트 단지로 표상되는 편리함과 개인주의가 도시 생활의 일상이 되고 있지만 타인들과 함께 서로 열린 감성을 나누는 공간으로서의 구멍가게와 마을 '사이 공간'을 매개로 하는 공동체적 인간관계도 필요하다는 균형적 시각으로 제시문을 분석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3.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선다형의 경우 정답만 기입*

[가]는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하는 전통적 인간관계가 산업화 이후 개인의 정체성과 개인적 목표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진술한다. [가]에 따르면 [나]의 편의점과 구멍가게, [다]의 아파트 단지와 마을은 개인과 사회 공동체라는 대립적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나]의 구멍가게나 슈퍼마켓이 사람들이 자연스레 만나 의견을 나누는 친교의 장소였다면, 편의점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무관심이 배려가 되며 인간관계가 번거로운 현대인들에게 최적화된 편의성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다]의 마을에는 사람들이 친밀한 사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이 공간이 있었으나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러한 사이 공간의 부재와 영역을 규정짓는 울타리로 인해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나]와 [다]의 구멍가게와 마을이 집단성에 기반한 교류를 상징한다면 편의점과 아파트는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현대적 인간관계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다만, 소통이 결핍된 아파트 단지에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만 나타나는 집단의 강한 결속 양상으로부터, 표면적으로는 마을과 유사한 공동체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거대한 집단 개인주의의 양상을 보이는 현대사회의 속성을 엿볼 수 있다. (597자)